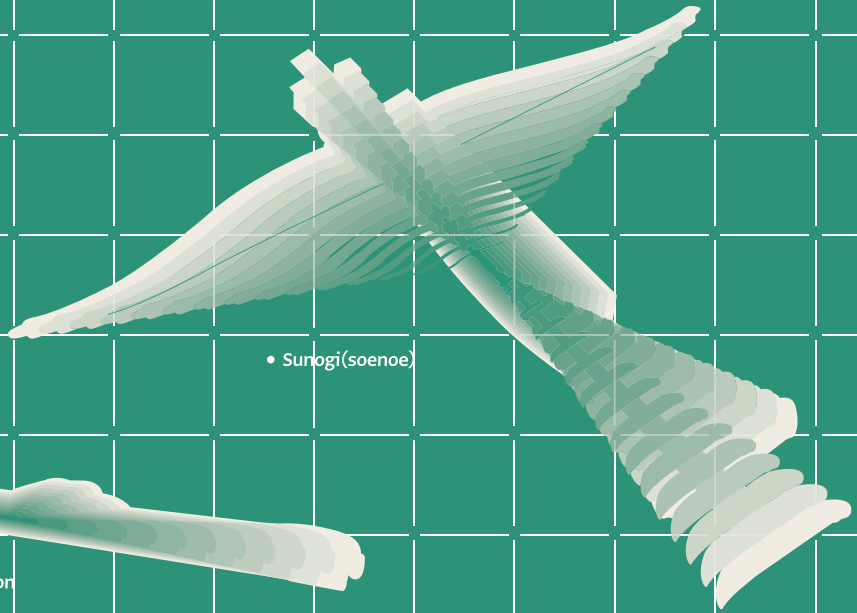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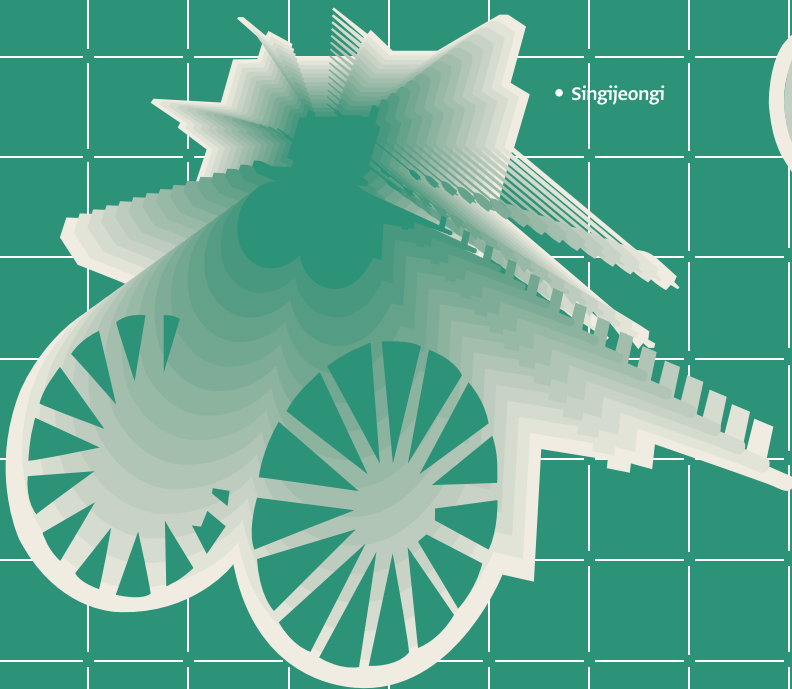


부천시 박물관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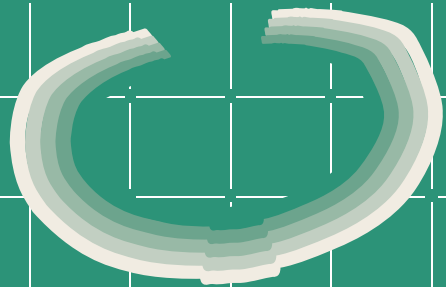


• Sunogi(soenoe)

• Tradition



• Singijeongi



• Jeongryanggung

고지도(古地圖)로 본 부천(富川)



이번 특별전 '고지도(古地圖)로 본 부천(富川)'은 2023년 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부천의 뿌리를 찾아보고 여러 사료(史料)와 고지도(古地圖)를 통해 부천의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고지도는 효율적인 국가통치를 위해 제작되어 지역의 풍속, 인구, 성씨, 읍치, 산수 등의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나아가 교통 노선과 거리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물과 역사가 기록되기도 하였다.

전시는 크게 <사료(史料)>가 전해주는 부천(富川)과 <고지도(古地圖)>가 보여주는 부천(富川)으로 구성되었다. <사료(史料)>가 전해주는 부천(富川)에서는 부천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한다. 오늘날 부천 지역의 출발은 선사시대 고강동 청동기 주거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에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존재한 마한(馬韓)의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후반경에는 백제에 흡수되었다. 그 뒤 부천 지역은 475년 백제가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겨 주부토(主夫吐)로 명명되었다. 551년에는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다시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그러나 553년 신라가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부천 지역은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이로써 부천 지역은 통일 신라 때인 757년(경덕왕 16) 장계군(長堤郡)으로 개명되었다. 고려시대에는 940년(태조 23) 수주(樹州)로 개명된 이후 안남도호부(1150년) → 계양도호부(1215년) → 길주목(1308년) → 부천부(1310년)로 지명이 바뀌었다. 조선시대인 1413년에는 부평도호부로 불렸으며 부천지역이 한강 수로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자 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국가 운영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다.

<고지도(古地圖)>가 보여주는 부천(富川)에서는 고지도에 나타난 부천의 변화상을 추적하며, 지도 제작기법의 발달은 물론 지명 표기와 인구변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고지도는 대부분 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이다. 초기에 제작된 고지도는 영토 확장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구체적인 교통노선과 거리 정보까지도 명시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몇 개의 고지도를 소개한다.



경기지의 부평지도
(京畿誌_富平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19세기 / 30.3 * 20.3 cm



광여도의 부평지도
(廣輿圖_富平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18세기 / 36.8 * 28.6 cm



지승의 부평부지도
(地乘_富平府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18세기 / 27 * 19 cm

1 부평군읍지의 부평지도(富平郡邑誌)



부평군읍지의 부평지도(富平郡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19세기 / 32.7 * 21.7 cm

이 지도는 1899년 전국적인 읍치 편찬명에 따라 부평군에서 작성한 읍지의 부도이다. 지방지도 중 기호화가 시도된 지도이며 매우 정돈된 필치로 그려져 있다. 고지도에서 기호화가 시도된 사례로 회화식 지도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인다. 산, 하천, 도로, 교량 등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당시에 세련된 기호로 표현된 점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미적 감각에 놀라게 된다.

2 (기전)읍지의 부평지도(畿甸邑誌_富平地圖)



(기전)읍지의 부평지도(畿甸邑誌_富平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19세기 / 28.6 * 17.8 cm

1871년에 제작된 「경기읍지」의 부도를 베껴 그 위에 정보를 추가한 지도이다. 「경기읍지」에 영성산(靈星山)을 영성산(廉城山)으로 표기한 경기읍지 부도의 오류를 그대로 따랐다. 읍지에서 양천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에 '서울 가는 길[距京大路]'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이 돋보인다.

3 부평부읍지의 부평지도(富平府邑誌)



부평부읍지의 부평지도(富平府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연대 미상) / 30.1 * 21.1 cm

도로 표시가 자세히 나타난 「부평지도」다. 다른 지도들은 도로를 대·중·소 구별 없이 실선으로만 표시하거나, 여부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 지도에는 도로망 옆으로 대·중·소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김포 방향으로 나가는 길, 금천교로 나가는 길, 그리고 인천 방향으로 나가는 길 등이 표시되어 있다. 서울-인천 방향의 도로가 중요했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천이 발전해 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의 행복한 도시 발전을 전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천시립박물관 이진희

2022 펄벅학술대회 후기

1950 ~ 60년대 펄 벅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1950년, 우리나라에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고, 휴전협정 이후에는 보편적 빈곤 상태가 만연한 상태에서 국토 재건을 위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 간과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전 미군으로 인해 생겨난 한국의 혼혈아동들, 외형적 차이를 넘어 부도덕한 출생이라는 편견으로 차별과 냉대의 대상이 되었던 혼혈아들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던 이 혼혈아들에게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서 성장하며 스스로를 ‘정신적 혼혈인’이라 불렀던 세계적인 작가 펄 벅(Pearl S. Buck)입니다. 196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자격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펄 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한국, 바로 이곳 부천에 ‘소사회망원(Sosa Opportunity Center)’을 세워 한국의 혼혈아동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6월, 부천펄베키념관은 펄 벅 탄생 130주년을 맞아 ‘1950 ~ 60년대 한국 사회와 펄 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펄 벅과 한국의 인연이 시작된 시기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적 업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펄 벅 연구자들과 펄 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교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950 ~ 60년대 한국을 배경

으로 집필한 펄 벅의 저서 가운데 그간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 소개되기도 하고, 당시 국내 혼혈인 복지정책과 대비되었던 펄 벅의 복지사업을 신문 기사를 통해 고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60년 첫 방한 전후로 수용된 펄 벅의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는 등 우리 과거 속에서 펄 벅의 삶을 반추하며 한국에 남아 있는 그의 발자취를 온전히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1950 ~ 60년대 국내 언론에서 펄 벅은 ‘이문화(異文化)를 다룬 세계적인 작가’, ‘인도주의자’, ‘혼혈아들의 어머니’ 등으로 불렸습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약자들을 향했던 그의 따뜻한 외침이 활자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펄베키념관은 많은 사람들이 펄 벅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념관을 통해 펄 벅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펄 벅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의 정신을 계승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후(戰後)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외쳤던 푸른 눈의 서양인 펄 벅이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펄 벅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는 한 토론자의 발언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도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립박물관 전누리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환

1 부천박물관 <오락장(五樂場)> 성황리에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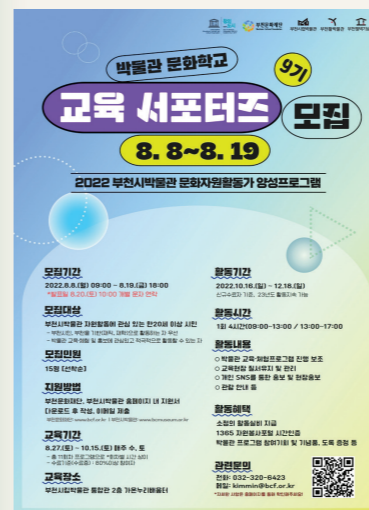
7월 23일(토)부터 8월 21일(일)까지 부천박물관에서 열렸던 편사(便射) 놀이를 주제로 한 체험전시 <오락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승 교육사 김윤경 선생이 직접 만든 활과 화살, 연무정(鍊武亭, 인천 활터)에서 소장해온 시지(試紙, 기록을 남긴 종이) 등 문화 자료 10점을 선보였다. ‘편사’는 편을 짜서 활쏘기 경기를 하는 전통문화로, 경기와 어울려 창악과 춤, 술과 음식을 즐기는 연희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편사’를 통해, 일반 백성들은 ‘활 백일장’을 통해 활쏘기를 즐겼다. 이번 전시는 그런 “즐거움으로서의 활”을 엿볼 수 있는 전시였다. 활쏘기, 쇠뇌쏘기, 제기차기, 뽕기놀이, 투호 활과 화살의 재료를 이용한 다섯 가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라는 이색적인 구성을 통해 관람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시를 마무리 하였다.

2 제13회 펄 벅 기념문학상 공모전 개최



제13회 펄 벅 기념 문학상 공모전이 열렸다. 공모 기간은 8월 9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로, 공모 주제는 “펄 벅의 생애가 보여준 인권과 다문화”다. 시상금은 총 980만 원으로 부문은 연령별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94년 이후 출생)로 나뉜다.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이제는 해묵은 이야기가 된 OTT 시대다. 그런데도 펄 벅 기념 문학상 공모전의 응모 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의 꿈이 유투버이고, ‘보고 싶어요’를 해놓은 영화와 드라마는 점점 쌓여가고 있는 지금 이 때에도 어딘가에는 글을 쓰고 있는 학생과 청년이 있는 것이다. 문학은 일종의 등가교환을 통해 전해진다. 작가는 오직 고독 속에서만 글을 쓸 수 있으며, 독자 또한 고독에서만 글을 읽을 수 있다. 잠깐 인터넷 창을 켜보아도 온통 시끄럽고 요란해지는 것만 같은 이 때, 책상 앞에 홀로 앉아 고독하게 문장을 쓰고 있을 지원자들의 조용한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어서 이들의 고독을 만나보고 싶다.

3 2022 문화 자원활동가 양성프로그램 '박물관 문화학교 교육 서포터즈'



부천시박물관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인력 양성 및 박물관 거점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문화학교’ 참여자를 오는 8월 22일까지 모집하여 활동을 개시한다. 이번 문화학교는 참여자들의 문화 매개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총 11회차의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성 과정은 서원주 전쟁기념관 전시유물부장을 비롯해, 박연희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윤경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등 박물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관련 분야 명사의 강연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문화자원활동가가 체험 교육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직접 박물관 일일체험을 운영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양성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이후 부천시박물관의 교육 체험을 보조하고 홍보 활동을 돕는다. 활동가들에게 소정의 활동지원금이 지급되며, 1365 자원봉사포털 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이후 박물관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시 참여 기회 및 도록 등이 제공된다. 이들의 양성 과정 및 활동 관련 소식은 부천시박물관 인스타그램(@Bucheonmuseum)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여기' 사람이 살았다

부천시박물관의 옹기관에는 언젠가 사람들이 살았던 '점말(점마을)' 입구가 재현되어 있다.

점마을은 여월동에 있던 마을 중 하나로, 가마터가 발굴된 곳이기도 하다.¹⁾ 여월동 택지개발사업 진행 전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조선 - 근대에 독, 화분 등을 주로 생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가마터가 세상에 드러났다. 비록 이 가마터는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사라졌지만, 부천시박물관 마당에 복원되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다.

한편, 점마을 표지석의 곁을 듬직하게 지키고 서 있는 향아리가 눈에 띈다. 바로 뚜껑과 몸체에 십자 문양이 그려진 향아리다. 향아리에 십자 문양이라니? 향아리와 십자문양의 관계에 대해 수수문을 하다 보니 '천주교'와의 연결고리가 나온다. 1890년에 천주교 제8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귀스타브 샤를 마리 위텔이 쓴 《위텔 주교 일기》를 보면 당시 다수의 천주교 신자들이 옹기를 제작하고 거래하며 살아갔음을 알 수 있다.

1899년 12월 18일 해미 미려벌 옹기 마을의 공소 방이 너무 좁아서 교우들이 한 옹기 공장에 제대를 차렸다. 26일 굴미 옹기 마을의 신자들이 성사를 받기 위해 사기소로 갔었다. 17일 신자들이 옹기 공장에 제대를 차렸다.²⁾

이 외에도 2008년에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에서 올라온 글을 통해 이곳에 존재했던 점말의 이야기 한 대목을 들을 수 있다. 점말에서 이장을 지냈던 류 바오로와 이 말가리다의 구술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발생한 박해 당시 신자들은 점말과 시흥시 멧골 등 경기도 인근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하며, 점말 사람들 대부분은 천주교 신자들이었다고 한다.³⁾

천주교 신자들이 생업으로 옹기 굽는 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점토, 시술, 땀감 외에는 시설과 자본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옹기점 장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잡역을 면제받았다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박해가 심한 시기에는 옹기가마가 집회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한다.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점말'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표지석으로만 남게 되고, 그 표지석조차 갖 곳을 잃고 부천시박물관 한 편에 자리 잡고 있다. 그와 더불어 각양각색의 자태를 뽐내며 전시되어 있는 옹기들도 그 표면에 그려진 문양들을 통해서 삶의 한 단면이 보이는 듯하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부천에서 이곳 부천시박물관은 얼마 남지 않은 부천의 과거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부천시립박물관 권세리



1) (재)고려문화재연구원·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2007.11., 『부천 여월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 위텔 저/편집부 역주, 2008.01.01., 『1896-1900 위텔 주교 일기 2』, 한국교회사연구소(p.434·436)
 3) 인천교구 홍보실, 2008. 05.04., <점말-제980호 여월동 '점말', 옹기를 구우며 생활한 가톨릭 신앙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2)>,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4) 김창식, 2009.03.03., <천년의 삶지혜 담긴 옹기> 박해 피해 숨은 천주교도 옹기 구워 생계 이어>, 《경상일보》

한 눈에 보는 부천시박물관 8~9월

이 달의 프로그램 PICK 체험 프로그램은 또 못참지!

부천시립 박물관		책상위의 반려식물 스칸디아모스 일시 8.20.(토) 14:00 수강료 10,000원 (입장료 별도) 신청방법 온라인 예약 결제
부천 활 박물관		생활공예 만들기 플루이트아트시계/스텐셀에코백 일시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수강료 15,000원 (입장료 별도) 신청방법 온라인 예약 결제

*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프로그램 안내 여름방학에 즐기는 박!캉스

프로그램	일시
부천시립 박물관	옹기와 놀자 (수/금) 10:00 (화/목/토) 13:00
	물레야 놀자 (수/금) 13:00
	초별하고 놀자 (화/목/토/일) 15:00
책상위의 반려식물	8. 20. (토) 14:00
	9. 17. (토) 14:00
유럽자기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8. 20. (토) 10:00 / 11:00
	9. 17. (토) 10:00 / 11:00
오색공예교실	8.6. (토) 11:00
부천 활 박물관	활문화교육과 활쓰기 8. 13. (토) 14:00
	8. 20. (토) 14:00
	9. 17. (토) 14:00
역사탐험대	8. 20. (토) 11:00
	9. 17. (토) 11:00
대나무 활 만들기	9. 24. (토) 10:00

*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부천시박물관 유물 집중탐구 🔍

부천시박물관 유물정보 한-입!



'해바라기 문양석'
 자연 상태의 암석에 실제와 흡사한 해바라기 문양이 들어있는 '청송 꽃돌'!



'신기전기'
 조선 초기의 로켓 병기로, 자체 추진력을 가진 신기전(화살)을 100발 연속 혹은 동시에 점화하여 발사할 수 있는 장치

행사안내 이번 여름에는 부천시박물관 가보자고!



2022년 부천시립박물관 특별기획
〈고지도(古地圖)로 본 부천〉展
 고지도를 통해서 부천의 공간·시간(역사)·사람의 변화상을 파악하여 부천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전시

전시일정 | 8. 18.(목) - 11.27.(일)(예정)
 전시내용 | 고지도, 관련 사료, 지도제작 기물 및 영상
 전시장소 | 부천시립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

부천시박물관을 즐기는 꿀-팁!

하나! 주목해야 할 2가지 포인트!

'부천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부천시립박물관 입장료 할인받자!

- ①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부천시** 검색하기
- ② **부천시** 채널 친구 추가하기
- ③ 부천시립박물관 쿠폰 받기

* 부천시민(자매도시) 50% 할인과 중복 불가

두-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부천시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부천시박물관(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팔백기념관) 무료입장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즐겨보세요!

부천에서 뭐하니?



2022년 제8회 부천생활문화페스티벌 다락

타악, 관현악, 무대예술, 성악 무용 등 시민들이 만든, 시민들의 축제 부천생활문화페스티벌 <다락>

일 시 7월 - 10월 부천시 전역
자세한사항은 부천문화재단 누리집참조

문의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 지원센터 032-320-6382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

현시로가 판타지를 넘나드는 루루섬에서 펼쳐지는 하루의 모험!

일 시 9.2.(금) - 9.3.(토)
장 소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일반 1만5천원(할인 별도 참조)
예 매 부천문화재단 인터파크티켓
문의 032-320-6334



윤전일 Dance Emotion 사랑에 미치다

발레리노 윤전일의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이 어우러진 감성무용극

일 시 9.3.(토) 17:00
장 소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관람료 R석 3만원, S석 1만5천원 (할인 별도 참조)
예 매 부천문화재단 인터파크티켓
문의 032-320-6336



가족뮤지컬 아빠! 캠핑가요

곤충도 잡고, 별도 보며 노래하는 신나는 캠핑 어린이 공연

일 시 9.21.(수) - 9.24.(토)
장 소 복사골문화센터 판타지극장
관람료 일반 1만3천원(할인 별도 참조)
예 매 부천문화재단 인터파크티켓
문의 032-320-6334

M+use 픽!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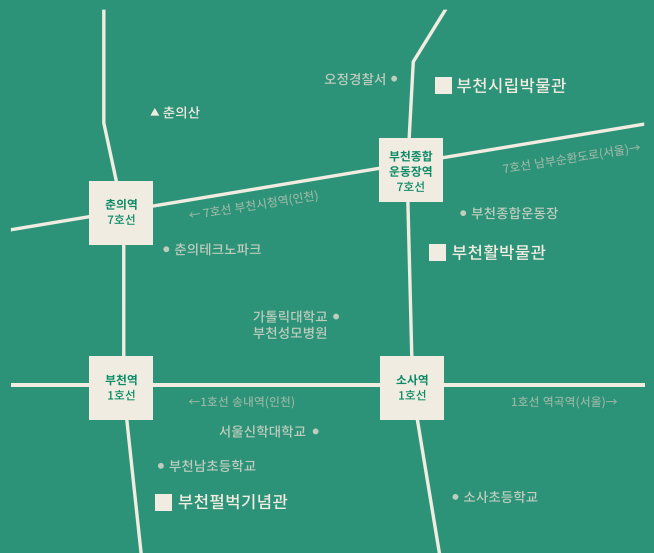
젊은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인생의 큰 상실을 겪은 가후쿠는 '바나 아저씨'의 연출직을 제안받아 지방 연극제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속 운전사 미사키를 만나게 된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운디드 힐러(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이를 치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루키의 단편을 영화화한 또 다른 감독 이창동의 일화를 이 이야기에 더해볼까. 이창동은 85년에 다섯 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그는 1년 동안 웃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그를 위로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한 학부모가 찾아왔다. 그 또한 사고로 자녀를 잃은 이였다. 이창동을 앞에 두고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 같은 배를 탔군요."

이를 떠올려, 위로라는 것은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 영화는 탁월한 솜씨로 가후쿠와 미사키가 타고 있는 '같은 차'에 관객을 태운다. 이 상처의 여정을 함께 하며 관객은 진실한 소통이란, 역설적이게도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가 아름다워지는 때는 그 불가해한 무언가를 영상으로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순간이다. 이 마법 같은 장면들이 끝나면 한 문장이 마음속에 남는다. "그럼에도 우린 살아가야 한다."

* OTT '왓챠'에서 감상 가능

오시는 길



- 부천시립박물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38 (032-684-9057-8)
- 부천활박물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032-614-2678-9)
- 부천필벽기념관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214번길 61 (032-668-7563-5)

부천시 박물관 소식지 2022년 8-9월호 | 격월간지 동권 6호

발행정보 발행처 (재)부천문화재단
발행일 2022. 8. 22. | 발행인 김정환 | 총괄 김대중 | 편집기획 정태우
편집지원 박수민 | 디자인 온더딩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38
전화번호 032-684-9057-8 | 홈페이지 www.bcmuseum.or.kr